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나

박태원 교수가 쓰는

불교로 보는 인생

프롤로그

시선을 모은 것이다. 그의 모친의 증언인 즉, 벼락부자가 된 이후 부모에게는 연락 한 번 없었다고.

지식 정보사회의 황금 여정에 의 기양양하게 출발하는 우리와 이 미국의 스타는 상관없는 것일까? 벤처와 신지식인의 영웅담에 가슴 설레는 우리들의 삶과 그 스타의 허무한 인생과는 무관한 일일까? 부처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과 이 일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느덧 40대 중반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신 지 벌써 10년을 지냈고, 공자님은 "내가 걷는 길에 비틀거리거나 헛갈림이 없는 나이(不惑)였음을 자신 있게 회고했던 시기이던가. 걷는 걸음걸음의 그 당당한, 긍지와 확신, 보람과 만족으로 환한 얼굴, 목적지에 대한 탄탄한 확신과 흔들림 없는 힘찬 행보. 만고(萬古)의 사표(師表)들이 펼쳐는 능률한 위용이

다. 그런데 시선을 지금 우리의 발 밑으로 던지면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들이 펼쳐진다.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 속내를 들다보면 2000년 한국의 성실한 40대 중반들의 공허한 마음들을 절감하게 된다. 그들은 활력과 경륜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갖추려 화려하다.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여 한국 사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

그들의 마음이 어찌서 짙은 허무의 그늘 아래 헛헛해야 하나?

그들은 이렇게 속내를 토로한다. "분명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했다. 그런데 무언가 잘못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헛헛음하고 있다는 생각이 커져간다. 도대체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것, 내 성취라는 것들, 직장, 예금, 가족, 명예 그 어느 것도,

길 한번 잘못들면 나와 남 모두 망쳐

공허감 없는 인생향로 불교서 모색

하는 역량과 성취의 외관은 실로 빛난다. 그러나 요란한 갈채를 뒤로하고 면벽(面壁)하여 자기를 대면하는 때, 이들의 마음을 부여해 주는 길은 허탈과 허무의 남(念)은 황당하기만 하다. 인정받는 중견 간부, 자리 잡힌 경제와 가정, 구제 금융 시대의 그 험난한 파도에 침몰하지 않고 헤쳐 나온 군센 의지와 성취는 분명 빛나는 전공(戰功)이 아니던가? 자부심과 긍지, 보람과 만족으로 든든해야 할

결국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들처럼 일순간 나를 떠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아무리 그것들에 그럴듯한 의미를 부여해도 허전함을 떨쳐버릴 수는 없다. 내게 남은 건실한 성취라고 할만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흔히들 인생관을 말한다. 쉽게 말해, 걸어가는 인생 길에 대한 안목이나 선택의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인생관의 의미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헤아려 본 적이

“사람은 어디서 와서 죽어 어디로 가는가”

옛 성현이 이르기를 “이 몸이 나기 전에 그 무엇이 내 몸이며, 이 세상에 태어난 뒤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한세상 살면서 사람노릇 하는 것이 나라고 하더니 눈 감은 뒤에 나는 또한 누구인가.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 세상에 왔으며 또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가? 누가 이 모든 진리를 말하여 주겠는가!”

성현이라야 능히 성현을 알아본다고 하였습디다. 허공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은 이 우주 법계를 다 내 집이라 여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은 허공같이 마음이 넓고 크신 분입니다.

대중으로 허공을 보면 대동만류만 보일다. 그것을 관경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치로 우물 안에서 허공을 보면 우물만하게 보일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허공을 바라보면 광대무변한 본래의 허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커지고 작아 집니다.

그러면 여러 분들은 어떤 마음자리를 가지시겠습니까? 내 자신 생각하는 어떠한 욕심으로 착신한다면 미물이 될 것이고, 중생(衆生)을 불쌍히 여기고 보살피는 대자대비의 광대무변한 생각으로 마음을 크게 쓰면 온 천하를 통치하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될 것입니다. 삼천大千 세계를 손바닥에 구슬 굴리듯 하시는 석가세존과 같은 성현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사(우주만물)는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주 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주 줄을 담은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법기(法器)라 하셨습니다. 샅털과 욕심과 어리석음을 버린 청정본래의 법기를 준비하고 잘 닦아(修道)놓아야 합니다.

중생들은 각각의 법기에 따라 그 이익을 얻는다 하였습디다. 그러나 중생들의 법기는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스로 마음의 작용에 의해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하고 현명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삼국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 말 경순왕이 덕망 높은 고승을 청하여 국가에서 재를 울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유명한 사찰에 고승대덕을 추천하라고 명을 내렸는데 추천하는 고승은 없는지라 그에게 하는 수 없이 국가의 재를 주재(主宰)하게 허락하였 습니다.

재는 끝나고 왕은 스님을 불러 "차후에 어디를 가지던지 스님께서 국재를 주재했었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마세요"라고 당부하자 그 스님은 "대왕께서는 누가 묻더라도 문수보살이 국재를 주재했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하고

는 동자로 변하여 홀연히 가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대왕은 깜짝 놀라 행장도 갖출 새 없이 뒤따라갔지만 스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처럼 잠시 잠깐이라도 어리석은 마음을 내면 부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수승한 위신력을 미쳐 깨달지 못함에서 오는 중생심이 원인입니다. 작금의 우리는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만 앞세우는 우둔한 행동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주인공인 우리들에게 "사람 몸 받기도 어렵고 사람 몸 받아도 올바른 법 만 나기 어렵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널리 우주를 포용할만한 마음 씀씀이로 한 세상 살아갑시다.

정리=도필선 기자 (psdo@buddhafia.com)

법회중계

거사림회 정기법회

(2000년 8월 20일)



혜안 스님 <유기사 주지>

**욕심대로 행동하면 미물
자비마음 쓰면 전문성왕
세상사 마음따라 달라져**

환경 등 사회참여 강화 '90년대 흐름'

세계의 불교학 <23> 미국 ⑤

90년대 이후 미국불교의 현황을 살피는 데 있어, '뉴욕 타임스'의 1996년 6월 26일자 기사는 시사하는 바도 크다. 이 기사는 20여 년간의 신축 공사를 마무리 짓고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티베트계 사찰 오디안을 다루고 있는데, "고대 불교의 새로운 장이 미국을 통하여 펼쳐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어서 2천 5백여 년 전 인도에서 시작하여 남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월남, 티베트 등에서 발전해 온 불교가 미국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으며, 1996년 뉴욕 주립대 조사에서 미국의 불자 수는 약 80만여 명으로 파악되었지만, 그 수의 두 배 내지 세 배는 될 것이라는 다른 불교 조사 기관의 주장도 전하며, 불교 센터 수의 빠른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과거 엄숙하고 소박한 형태의 선불교를 선호했던 미국인 불자들이 흥미롭고 화려한 티베트 전통의 불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불교의 종교 및 철학적 측면 외에 문화적 관심과 활동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정토진종의 미국식 이름인 'Buddhist Churches of America(미국 불교 교회)'로

속히 진보하고 있는 '인터넷' 기술문명이 불교의 포교에 새로운

만 여명의 불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본토에는 동일한 이름의 사찰이 캘리포니아에 44개, 워싱턴에 5개 등 여러 주에 걸쳐 60여 개나 개설되어 있는데, 이를 선종·상좌부·티베트계 사

할 수와 합치고, 이 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국인 불자 수를 추론한다면 2백여 만 명은 넘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미국 불교계 특징은 기존 불교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승단(Cyber Sangha)의 형성과, 이에 따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불교인 공동체의 출현을 꼽을 수 있다. 즉, 급

대중 역시 적극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이를테면 1996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센터주주의 계사나 수도원에서 열린 '수도자들의 종교간 대화(Monastic Interreligious Dialogue)'는, 기독교인과 동반자 관계를 시도하는 불교인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계사나 수도원은 세계적인 문필가로 주목받던 트라피스트 수도사 토마스 머튼이 살았던 곳으로,

티베트불교 관심... 불자 200만 '급증'

사이버 신행·종교간 대화도 활발

속히 진보하고 있는 '인터넷' 기술문명이 불교의 포교에 새로운 만 여명의 불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본토에는 동일한 이름의 사찰이 캘리포니아에 44개, 워싱턴에 5개 등 여러 주에 걸쳐 60여 개나 개설되어 있는데, 이를 선종·상좌부·티베트계 사

할 수와 합치고, 이 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국인 불자 수를 추론한다면 2백여 만 명은 넘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미국 불교계 특징은 기존 불교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승단(Cyber Sangha)의 형성과, 이에 따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불교인 공동체의 출현을 꼽을 수 있다. 즉, 급



△대중법회를 통해하고 있는 미국인 불자들.

친불교적이었던 그의 정신세계를 되새겨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대회에는 달라이 라마와 캄보디아 평화 지도자 마하 고사나드, 미국 불교의회 공동 의장 라타나사라 수님, 일본 하나조노대 선학연구소장 니시무라 스님 등 불교계 대표 25명과 바류 신부, 배동 신부, 미국의 주요인 제리 신부 등 가톨릭계 대표 25명을 비롯해 홈킨스, 브라운, 예크, 커신, 미첼 교수 등 불교·가톨릭계의 저명한 학자들도 참석해, 두 종교간의 이해와 협조를 논의했다.

또한 4년마다 '불교·기독교학회 국제회의'가 하와이·버클리·보스톤·시카고 등지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회의는 학회 이름이 시사하듯 동·서양을 대표

하는 두 종교가 지구촌 문제에 어떻게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인가 같은 문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공감을 형성해 나간 학자적인 노력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약 600여 명의 학자와 활동가들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다양한 연구 발표와 그룹 토론을 통해 사회 현안들을 분석·검토했고, 진정한 사회 발전을 위한 종교인들의 역할과 사명을 논의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미국 불교계는 지성적 활동은 물론 사회 현실 문제에 적극 대처하면서, 미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현안 해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fia.com)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진행자 혜거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좌 개강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1:30 4개월간

교육장소: 금강선원

개강일시: 2000년 9월 5일(화) 오후 1:30

회비: 4개월에 10만원(교재비 포함)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진행자 혜거스님의 『불교교리』 강좌 개강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3개월간

교육장소: 금강선원

개강일시: 2000년 9월 6일(수) 오전 10:30

회비: 3개월에 6만원(교재비 별도)

☎ 02) 445-8484 대한불교 금강선원
서울 강남구 개포동 5단지 186-3 조계종 금강선원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2000학년도 가을학기 원생모집】

과정명	분야	세부과정명	교육기간	주야 구분	비고
교양교육과정	불교	불교의 이해	1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2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1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2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1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2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1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2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1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2학기	주간	
전문교육과정	불교	불교의 이해	1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2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1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2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1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2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1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2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1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2학기	주간	
특수교육과정	불교	불교의 이해	1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2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1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2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1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2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1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2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1학기	주간	
		불교의 이해	2학기	주간	

TEL: 02) 2260-3728-9 / FAX: 02) 2260-3730
홈페이지: http://dgucc.dongguk.ac.kr/soedu

불교단체 사무직원 급구

종무행정직 사무장 및 전산사무직, 편집기자
(고등학교졸업이상 남녀40세 이하)

- 경력자 우대
- 인원: 0명 (서류접수 = 이력서, 사진첨부)
- 근무지: 서울지역
- 접수처: 대구광역시 북대구 우체국 사서함 22호 **불타사랑**
- 연락처: 053) 954-4047
- 접수마감: 2000년 8월 25일
- 당일 소인 유효